

## ‘존넨알레’를 읽고

김현유(서울 외국어 고등학교 1학년)

‘존넨알레’는 ‘태양의 가로수길’이라는 뜻의 예쁜 이름을 가진, 베를린을 가로지르는 약 4Km의 긴 도로이다. 그런데 베를린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누어지면서, 어이없게도 이 길의 끝 60m가 동베를린에 속하게 되었다. 이 글의 주인공 미하엘에 의하면 시가 관리를 못한 처칠 탓이라 한다. 아무튼 그 덕에 미하엘과 존넨알레 거리의 소년들은 동독 국민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다.

빈터에서 금지음반을 들으며 나뉘는 반항을 하는 친구들, 아들을 붉은 수도원에 보내려는 어머니와 옆집 이웃을 슈타지라 의심하는 아버지, 서독에서 허가된 물품을 ‘밀반입’하다 최후에는 그 자신이 밀반입된 삼촌, 서독을 동경하는 학교 최고의 미녀 미리암, 동독 땅을 사서 해방시키려는 마리오와 여성실존주의자 등 존넨알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평범하다고는 할 수 없는 이들의 삶에서, 동독, 공산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는 괴리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삶으로만 보일 뿐이다. 물론 슈타지, 금지곡, 밀반입 등에서 동베를린이라는 게 보이긴 하지만, 가볍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해프닝을 보는 기분만 들 뿐이다.

이 곳의 사람들에게 베를린 장벽은 그다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들에게 장벽이라는 것은 그들을 틀어막고 가두어놓는 벽이면서도 ‘일상’이다. 아마 그들은 벽이 허물어질 길 바라면서도, 그 벽이 없는 일상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휴전선을 보며 무거운 기분을 느끼는 것과는 사뭇 다른 감정이다.

동독이란 것에 대해서도 그다지 큰 감정은 없다. 책 전체에서, 체제나 분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고 오히려 주된 내용은 평범한 성장소설과 비슷하다. 주인공이나 그 친구들이 가지는 감정도 청소년기의 반항심과 비슷하다. 동독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마리오와 여성실존주의자의 생각도 허황되어 보이기만 하다.

미하엘이 동독에 사는 것을 싫어하게 된 것도 고작 연애편지 때문이다. 미리암은 학교 내에서, 어쩌면 존넨알레 내에서 최고의 미녀이다. 남자들이 그녀의 남동생에게 선물을 바

쳐가며 정보를 알아내고 그녀가 가는 댄스학교에 등록할 정도이다. 미하엘은 온갖 노력 끝에 댄스학교 졸업 무도회에서 그녀의 파트너가 된다. 며칠 뒤, 그는 빨간 하트가 붙어있는 연애편지를 한 통 받는다. 미하엘은 그게 미리암의 편지일지도 모른단 생각에 두근거리지만, 채 읽기도 전에 무차별발포지역으로 날아가 버린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미리암은 성격상 절대 그 편지를 썼을 리 없을 것이고, 오히려 유산탄이 쓴 것 같아 보인다. 미하엘이 편지 쓴 사람을 알았어도 무차별발포지역을 원망했을까?

이렇듯 책에서는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어있던 아픈 시절을 그저 추억으로만 그리고 있다. 그 당시의 시대상이 보이기는 하지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고, 오히려 회화화의 대상이 된다. 그 시대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그 시대가 다 지나갔고 모두 회복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 토마스 브루시히는 동베를린에서 태어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겪었다. 그래서 당시의 동독 상황을 더욱 정확히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느꼈던 동베를린은 모순되어 있었다. 장벽에 갇힌 이 짧은 거리는 한마디로 설명해 낼 수가 없다. 그는 그 느낌을 그대로 독자들에게 보여줬다.

이 글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무언가'에 열심이다. 그것이 사랑이든, 금지음반 수집이든, 국가 전복이든지 간에 말이다. 어찌보면 그들의 삶에서 동독의 그들은 전혀 찾아볼수 없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 깊숙이에는 동독이 들어있다. 그들은 진심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버리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

존넨알레를 읽으며, 솔직하게 부러운 생각도 많이 들었다. 서독 관광객들이 미하엘을 놀리는 것조차 부러웠다. 서독과 동독은 분단된 상태였지만, 어느 정도의 소통은 이어져 있었다. 분단 후에 두 나라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우리나라의 6.25이후 극단적인 혐오와는 달랐다. 서독에 있는 삼촌이 친척들을 보기위해 동독으로 오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였다.

왜 우리나라는 그럴 수 없었을까? 휴전선보다 더 굽은 선이, 베를린 장벽보다 더 높은 장벽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것 같다. 그 벽은 국민들 사이의 감정일 수도 있고, 강대국들의 압력일 수도 있다. 문제는 그 벽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도 사라졌고 북한에 대한 오해나 싫은 감정들도 사라졌는데, 아직도 어떠한 벽이 남아 있다.

작가가 언급한대로 우선 시간이 흘러야만,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어야만 코미디가 가능해진다. 휴전선에 대하여 농담을 던지기엔, 아직 우리나라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것 같다. 먼저 그 아픔을 서서히 회복한 뒤에야 웃으며 말을 할 수 있겠지. 언젠가는 꼭 우리나라도 휴전선에 대한 유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한다.